**삿1801 Note**

**◆ Cross check 수1940-48, 삿0134-35**

수1940. 그리고 일곱째 제비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단 자녀들 지파를 위해 나오니라,

수1941. 그리고 그들의 세습물의 지경은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수1942. 그리고 사알랍빈, 아얄론, 이들라,

수1943. 그리고 엘론, 딤나, 에그론,

수1944. 그리고 엘드게, 깁브돈, 바알랏,

수1945. 그리고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수1946. 그리고 욥바 앞의 지경과 함께, 메얄곤, 락곤이었느니라,

수1947. 그리고 단 자녀들의 지경이 그들을 위해 너무 적게 나갔느니라, 그러므로 단의 자녀들이 레셈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검의 날로써 쳐서, 그것을 점유하여, 그 안에서 거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좇아, 레셈을 단이라 부르니라,

수1948. 이것이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단 자녀들 지파의 세습물 곧, 그들의 마을들과 함께 이들의 성(城)들이니라,

삿0134.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단의 자녀들을 산지로 강제로 밀어붙였느니라(라하쯔:누르다,괴롭히다,학대하다,학대자,부숴뜨리다,강제하다,고수하다,의탁하다), 이는 그들이 계곡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인용(忍容)하려 하지 않았음이라,

삿0135. 대신에 아모리인들이 아얄론과 사알빔에 있는 헤레스(헤레쓰:빛나는,팔레스틴의 한 산 헤레스) 산에서 거하고자 하였느니라(야알:양보하다,승낙하다,착수하다,시험적으로 해보다,시작하다,족하게 여기다,기쁘게 하다,감히 ~하다,기꺼이,하고자 하다), 그럼에도 요셉의 집의 손이 이겨서(카바드:무겁다,짐이 되는,다수의,부유한,존경할 만한,무겁게 하다,~으로 풍부한,영광,영화롭게 하다,영광이 되다,영화롭다,매우 큰,좀더 무겁다,존귀,존귀하다,존귀하게 하다,존귀를 받다,스스로 높이다,존귀한 사람이 되다,많아지다,강성하다,승진하다,

부유하다), 저들이 조공을 바치는 자들로 되니라,